

한국펄프종이공학회 제17대 학회장 전 양 교수님의 명복을 빕니다.



한국펄프종이공학회는 지난 2026년 3월 19일 향년 82세로 선종하신 17대 학회장이시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고(故) 전양 교수님의 명복을 빌며, 우리나라 펄프제지 산업 분야의 인재양성과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고인의 업적과 삶의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겨 추모하고자 한다.

고인은 서울대학교 입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임산공학과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충남대학교 임산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펄프제지분야 교육과 연구를 통해 후진양성과 산업발전에 기여하였다. 94년부터 97년까지는 제지과학연구회장으로 재임하면서 국내제지업계 기술진과 학계 연구진 간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산학협력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2000년부터 2년간 한국펄프종이공학회장으로 재임하며 학회의 운영체계를 위원장 중심 구조로 개편하여 조직의 효율성과 체계화에 기여하였다. 당시 마련된 학회 운영의 큰 틀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아울러 동경에서 개최된 Pan Pacific Conference에 참가하여 KTAPPI가 PPC의 회원국 가입을 성사시켰으며, 2006년 PPC를 서울로 유치하는데 기여하는 등 학회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크게 공헌하였다. 더불어 학회 기술교육의 정례화를 통해 산업계 인력 재교육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실무 기술 역량 향상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퇴임 후에는 계룡산 남쪽줄기 끝자락 환상성 동쪽 골짜기에 덕암산방을 마련하고 자연 속에서의 삶을 이어가며, ‘덕바우’라는 이름으로 블로그를 통해 일상과 암벽등반에 관한 기록을 남기는 등 학문적 열정과 더불어 삶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었다. 지금도 블로그를 통해 퇴임 후 지내던 모습을 볼 수 있다.

<https://blog.naver.com/yjeon8/220748025340>

제작년에는 친구분들과 8순기념으로 인수봉을 올라 노익장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고인의 세례명은 아오스딩이며, 유족으로는 배우자 윤교자 여사와 장남 전원(변호사), 차남 전수(캐나다 워터루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장녀 전정혜 씨의 2남 1녀가 있다.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고인의 별세를 깊이 애도하며, 한국 제지공학 발전에 남긴 큰 업적을 오래도록 기리고자 한다.

■ 작성: 펄프종이기술 편집위원장 이학래